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산업을 위한 표준 및 인증 현황

김유겸

FITI 시험연구원 표준화연구센터장

Standards and Certifications for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Industries

You-Kyum Kim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Standardization Research Center

1. 서론

패션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섬유 산업에서 주목 받고 있는 몇 가지 이슈와 이와 관련된 새로운 경향에 대한 사례를 먼저 소개한다.

사례 1. 유아용 의류 제품이 “유기농 소재”로 제조되었음을 알리는 제품 표시가 아기 엄마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유아용 의류제품이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유기농 면 소재는 소재 자체의 안전성 때문에 시장에 소개된 것이 아니라, 면을 재배하면서 사용하는 농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농약으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소재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80년 동안 면의 재배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생산량은 3배가 증가하였다. 이런 생산량 증가는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되고 있다.

사례 2. 일상 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로 제조된 아웃도어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급 아웃도어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아웃도어 retailer인 Patagonia 사의 예를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섬유, 패션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구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연을 즐기는 동시에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례 3. 해외 retailer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노력 확대

섬유, 패션 산업은 구조적인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하여 매우 길고 복잡한 supply chain을 가지고 있다. 이런 supply chain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대형 retailer들은 제품의 생산, 유통, 공급 과정에서 많은 supply chain기업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각종 법규와 노동관련, 공정무역, 소비자 보호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 등에 대한 많은 요구에 직면한다. 이에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이행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의 3가지 사례는 현재 섬유, 패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트렌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섬유, 패션 산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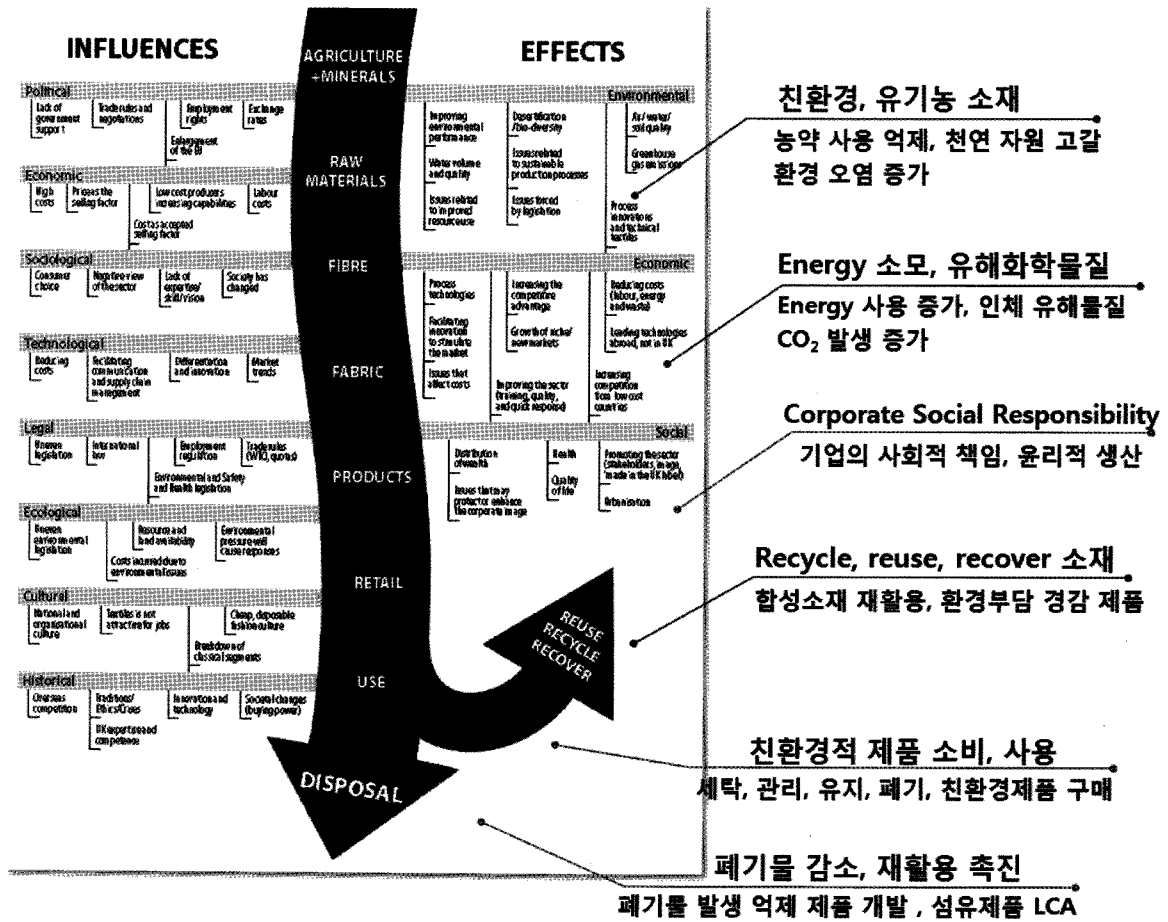


그림 1.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제품 생산, 유통 및 소비과정에 대한 표준화 이슈

기업 활동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친환경적인 소재의 선택에서 더 나아가 그 소재 자체가 생산되기 까지 어떤 환경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의 사용과 폐기 시 까지 고려하는 전주기 평가 (life cycle assessment)의 개념이 의류 제품에도 도입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기업임을 알리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sustainable textiles & fashion 산업의 천연 소재 재배, 생산 공정,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활용되고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관련 initiative 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을 위한 표준 및 인증 현황

현재 sustainable textile & fashion을 위한 국제 표준, 즉 ISO에서 제정된 표준은 아조 염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정도외에는 공식적으로 발행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유기농 면이나 recycle polyester 등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정의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관련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유기농 면이나 recycle 섬유 소재에 대해 민간 단체들이 자발적인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소재 및 제품은 물론 생산, 유통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관련 표준 및 인증 주체들에 대해 살펴 본다.

●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GOTS)



GOTS는 2002년, 세계적 유기농 단체인 독일의 IVN, 미국의 OTA, 영국의 SA, 그리고 일본의 JOCA에 의해 제정된 국제적 유기농 섬유 표준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유기농 섬유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준을 통합하고, 유기농 섬유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마련해 유기농 섬유 제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GOTS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씨앗, 재배방식, 방적, 편직 및 제직, 염가공, 프린트, 봉제에 이르는 제품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증기관의 방문심사를 통해 씨앗에서부터 봉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받은 후 비로소 GOTS 인증을 부여 받게 된다.

GOTS 인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기농’ 또는 ‘전환기 유기농’가 표기된 라벨이고, 다른 하나는 ‘X% 유기농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된’이 표기된 라벨이다. 첫 번째 라벨의 최소 조건이 유기농 면 또는 전환기 유기농 95% 이상 함유인 반면, 두 번째 라벨의 최소 조건은 유기농 면 또는 전환기 유기농 70% 이상 함유이다. GOTS 인증 절차를 받기 위해선 유기농 면 또는 전환기 유기농 함량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 환경, 노동 조건, 위생 등 사회적인 기업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국제적인 민간 표준으로서 유기농 섬유와 제품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GOTS 는 모든 천연 섬유에 대한 생산, 가공, 제조, 포장, 라벨링, 수출, 수입 그리고 유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부분은 섬유의 가공 그리고 농장의 작업 환경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표준은 종합적이며 ILO의 핵심 노동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물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폐기, 화학물질 사용과 오염에 대한 것과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eko-Tex Standard 100



1990년대 초 건강상 안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섬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고안된 Oeko-Tex Standard는 섬유의 원료부터 생산 과정,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적인 민간 인증 제도이다. Oeko-Tex Standard 100은 유해물질 관련 인증제도 중 세계에서 가

장 보급률이 높은 제도로, 섬유 재료 및 제품에 있어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건강상 해롭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 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납품 절차에 용이함과 신속성을 더하여, 의식적으로 건강상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배려하고자 한다.

Oeko-Tex Standard 1000은 Oeko-Tex Standard 100을 보완해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의 폐수처리, 탄소 배출, 수질관리, 염색 및 화학물질 처리 등 전반적인 환경 관리를 조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전 제품의 30%가 Oeko-Tex Standard 100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Oeko-Tex Standard 100plus는 생산된 제품이 건강상 안전하고 생산 과정 역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이 Oeko-Tex Standard 100과 Oeko-Tex Standard 1000 인증을 받아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 Textile Exchange(구 Organic Exchange)



Organic Exchange는 2004년, 유기농 소재의 재배 및 소비를 통해 환경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친환경 단체이다. 본 협회의 목표는 10년 안에 전세계 총 면화 수요 및 공급량의 10%를 일반 면화에서 유기농 면화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증 받은 유기농 면화 농장을 매년 전년 대비 50%씩 확장시키고, 유기농 면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키며, 유기농 면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 유기농 소재 제품에 대한 OE 100 standard와, 유기농 소재와 혼방된 제품을 위한 OE Blended Standard를 발행하고 있다.

Organic Exchange는 글로벌 의류 기업들과 함께 유기농 면을 비롯한 유기농 소재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 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 면화가 유기농 면화로 변환되는 과정에 농민, 공급 업체, 생산 공장, 의류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11월 conference 개최를 기점으로 organic textile 뿐만 아니라, 리사이클 소재, 에너지 절감, 공정 거래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Textile Exchange 로 명칭을 바꾸었다.

● GRS(Global Recycle Standard)



Made with recycled cotton
60% pre-consumer & 40% post-consumer
CU#12345, www.controlunion.com

2008년 Control Union Cetification (CU)에서 개발한 리사이클 인증 프로그램으로, 최종 제품에 사용된 리사이클 소재의 함량을 확인해 주는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포함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supply 및 value chain 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된 최종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1월부터 이 표준을 Textile Exchange에서 인수하고, 이 표준을 활용한 인증 기관으로서 Control Union 사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 Soil Association



1946년 영국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intensive farming 을 반대하고, local purchasing을 지원하며 1967년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세계 최초의 인증을 실시한 단체이다. Soil Association에서 보유한 표준중에는 유기농 섬유 소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 자체는 유기농 섬유 소재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지 않고, GOTS에서 유래된 표준을 도입하여 재인증하여 활용하고 있다.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은, 특히 동물 복지, 농약 및 비료의 사용 등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유기농 경작의 법적인 최소 수준을 상회하기도 한다. 유기농 식품과 섬유소재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SACL)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500개 이상의 농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11월 1일 각 회원국 간의 논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사회 조직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총 118페이지에 달하는 ISO 26000 표준은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 7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를 구

성하는 모든 조직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첫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다.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표준은 조직 거버넌스, 인권 등 7개 핵심주제에 대한 실행지침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표준 이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선언한 여러 지침과 달리 사회적 책임 실천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사회 전반의 조직 활동 특히 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준수 요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표준 자체에서도 인증을 위한 표준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외 대형 retailer 들이나 buyer 들이 자체적인 친환경 프로그램이나, 윤리적 생산, 공정 거래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향후에는 ISO 26000 표준이 개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준수 요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 I. ISO 26000의 7개 핵심주제와 주요내용

핵심주제	주요 내용
조직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각 이해관계자들의 고른 참여 여성·소수인종 등 소외받기 쉬운 주체들의 참여 보장 등
인권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 노동력 착취 금지 등
노동관행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준수, 안정적인 고용관계, 직장내 안전 및 보건 관리 등
환경	오염물질, 탄소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등
공정운영 관행	부패에 대한 감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등
소비자 이슈	소비자 보건 및 안전관리, 공정한 마케팅, 왜곡되지 않은 정보제공, 위조나 표절 금지, 리콜 보장, 가격 구성정보 공개 등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공동체에 참여, 고용창출, 책임 있는 투자, 조세 의무 준수 등

● Certified Australian Organic("the bud label")



호주의 가장 큰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여, 농장 관리, 토양 fertility, pest 와 질병 조절, 유전자 조작 작물 사용 그리고 지역 종의 보전에 이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인증 시 기본적인

인권과 ILO 의 노동 기준의 부합여부를 요구한다.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는다.

● Clothing Trades Award

reducing with
the Carbon Trust



의류 소매상과 도매상 그리고 제조자들은 연방 Clothing Trade Award(또는 state award 와 동일한) 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이 awards 는 또는 TCFUA (the union) 작업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작업장 출입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awards는 아웃

소싱시 외부 작업들과의 계약서와 계약자 목록을 state 또는 Federal Board of Reference 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계약자들에게 부여한 작업 시 지불한 가격, 작업 완료 기간 가먼트의 복잡성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된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외부 작업자들에 대해 고용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Carbon Footprint

Carbon Trust는 기후변화의 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영국 정부가 민간 및 공공 사업 부문의 지원으로 설립한 독립 기관이다.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에서 회계 감사를 직접 하고는 있지만, 정부 지원 자금으로 기술 개발 성공 시 Carbon Trust에서 독자적으로 별도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다른 회사에 재분배할 수 있다. Carbon Trust에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 전문가 기술자문, 재정 지원 및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다.

Carbon Trust는 흔히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라고 알려져 있는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 제도를 통해 하나의 상품이 생산, 소비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기타 온실가스의 총량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탄소가 덜 배출되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관련 Initiative

sustainable textile & fashion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주도하는 자생적 조직들로서, 직간접으로 섬유와 패션 산업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된 농약 사용, 토양 오염, 자원 순환, 에너지 절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해 당사자(stakeholder) 들간의 이슈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비영리 형태의 조직이나 해당 분야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 BCI(Better Cotton Initiative)

BCI는 면화 재배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시키고, 면화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기업, 비영리 단체, 환경단체, 면화 재배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BCI는 유기농 면화 재배 농민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과 물, 화학 비료 등의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토양의 질과 생태 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환경친화적 면화 재배와 그 사용에 대한 전 지구적 인식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여러 장기적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사업의 일환으로 BCI는 면화 재배자들에게 농업 및 유기농 면화 분야의 가이드라인과 전문가를 제공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면화의 재배 과정과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재배 방식을 개선하며, BCI를 통해 수요·공급 체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면화 구매자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Better Cotton Fast Track Programme(BCFTP)을 통해 2015년까지 1백만톤의 Better Cotton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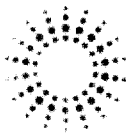


GRI는 기업 및 국제연합환경기구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으로, 1997년부터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보고서처럼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발표해오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정도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GRI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과정을 거쳐 개발되는데, 전세계 모든 지역의 리포팅 기관, 여러 분야의 전문 기관 및 보고서 정보이용기관의 대표들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 공식적으로 전세계 1,000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들이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보고서 공개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SR

BSR은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 컨설팅 기관으로, 컨설팅 및 연구 외에도 매년 세계 최

대 규모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컨퍼런스를 개최해, 다수에 이르는 세계 우수 기업에 혁신적인 기업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북미, 아시아,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 BSR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일상적인 기업 운영에 통합하려는 움직임과,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그린 제품, 그린 디자인, 생태계 서비스, 지속가능한 소비 등의 혁신적인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BSR은 세계 우수 기업에 경제개발, 환경전략,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공급체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전략을 구상한다. 이 외에도 BSR은 기업 세계와 공공부문,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대화, 참여 및 협력을 강조하고,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발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National Packaging Covenant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개선된 디자인과 생산공정과 포장 소재의 re-use, recycle 처리를 통하여 사용된 포장의 폐기에 대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보전을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비롯되었다. 법적 근거는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 on Used Packaging Material (NEPM) 에 기반한다.

● CEO Water Mandate



CEO Water Mandate는 2007년 유엔글로벌 콤팩트에 의해 설립된 공사(public-private)간의 협력 이니셔티브로, 기업들이 세계적인 물 위기에 대응해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은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을 소비하고 대량의 폐수를 내보내게 된다. CEO Water Mandate는 물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믿으며, 과제 해결을 위해 기업 외에도 정부, 유엔 기구,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조 하고 있다. CEO Water Mandate는 직접생산, 공급 체인과 강 유역 관리, 공동 행동, 공공정책, 커뮤니티 참여, 투명성 등 여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적인 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시하고 있다.

● PAN(Pesticide Action Network)



PAN은 무분별한 농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된 영국의 독자적인 비영리 행동 단체이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세계 곳곳에 자율적인 지역센터를

둔 PAN은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대체해 해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농약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무분별한 농약 사용이 불러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PAN은 국제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규제, 금지된 농약 자료를 수집하고, 농약 사용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풀뿌리 환경단체의 설립을 적극 권장해 농약이나 살충제 같은 화학 물질이 첨가된 농업 제품의 재배 및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 입기 프로젝트(Wear Organic Project)를 시작해 농약 처리된 면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사망률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4. 결론

green fashion, sustainable fashion 에 대한 fashion retailer 기업들의 관심 확대와 함께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도 함께 증대되었으나, 실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표준이 미처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Sustainable textile & fashion에 대하여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관련 표준 개발과 인증 프로그램의 특징은 최근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준화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WTO 협정에 의해 국제 교역시 표준이 기술적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TBT 협정에 따라, 공식적인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이 무역 장벽화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더 이상 표준이 교역 제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WTO 에서는 공적 표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과 그에 의한 민간 표준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 이 실질적인 민간 교역의 새로운 무역 기준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Oeko-Tex standard라 할 수 있다. 유럽의 민간 기관 간의 협의체인 Oeko-Tex에서 개발한 규격(specification)에 의해 친환경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서의 섬유, 의류 제품의 사실상 국제표준이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초에 소개된 이 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한편 ISO를 통한 국제 표준의 개발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이미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Oeko-Tex를 대체할 국제표준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유럽의 해당 표준개발자들이 회의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구성된 민간 기관이나 조직들이 자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의해 진행되는 표준의 개발 작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표준화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 과정에는 표준개발의 기본 요소인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객관성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Sustainable textile을 위한 표준 개발에 있어 유럽의 민간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앞서 설명한 Oeko-Tex가 개발되고, 보급 활용 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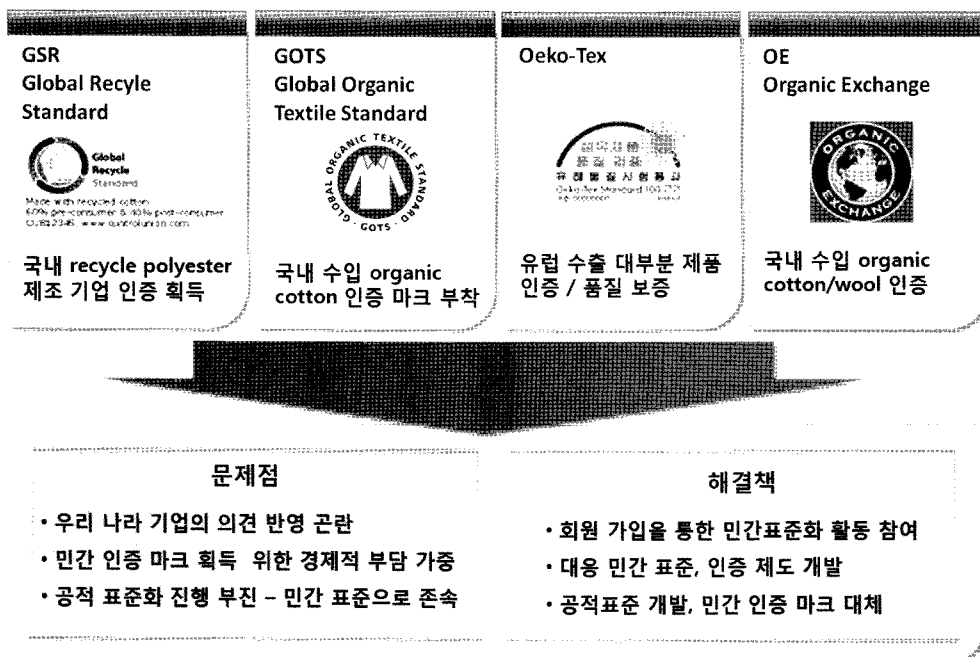


그림 2. Sustainable textile 소재에 대한 민간 인증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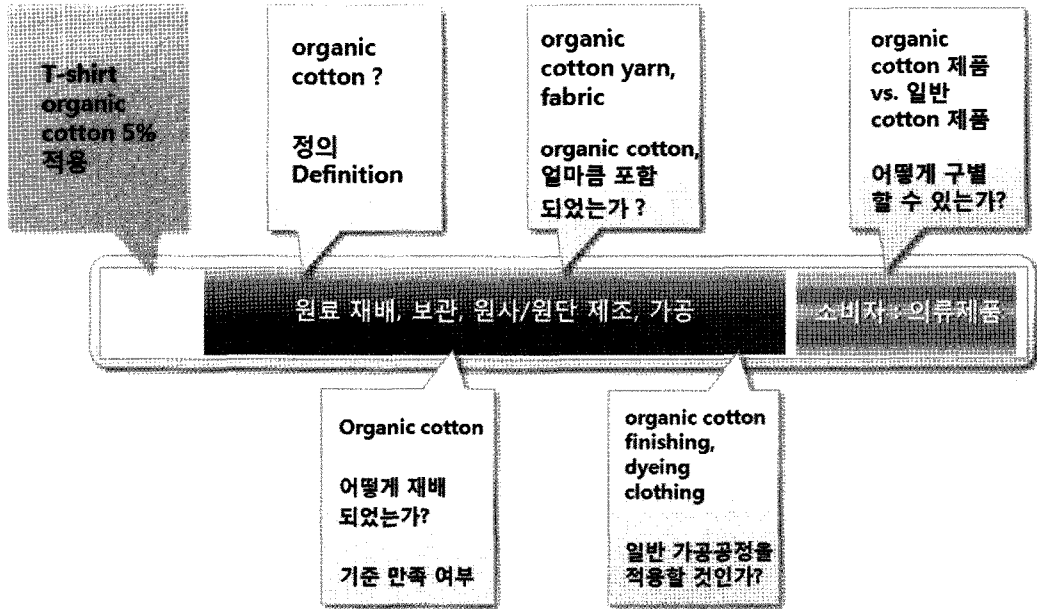


그림 3. 유기농 면에 대한 표준 및 인증 프로그램의 필요성

산업 표준의 본격적인 성장은 제품 생산을 위한 각 산업의 요구와 함께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표준 개발의 주체는 생산 기업이었으며, 이들의 애로 사항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표준이 활용되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고 제품 생산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표준 개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친화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표준의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발달에 따른 융합 제품의 출시로 새로운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함께 표준에 담아야 하는 “표준의 역할 변화” 시기를 맞고 있다.

단순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의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 만족,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척도로서 표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섬유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customer industry”를 이해하고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표준의 개발과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ISO 26000 이행을 비롯한, retailer 기업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이행 대상이 확대되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supply chain에 포함된 기업들을 모두 대상으로 할 경우,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섬유·패션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를 확대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시장에 대한 국제표준의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FITI 시험연구원 표

준화연구센터에서는 2010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기반 조성사업(과제명: 지속성장형 Green 섬유·패션산업의 국제표준 대응 체계 구축, 총괄책임자: 김유겸)을 통해 Sustainable Textiles & Fashion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기반 조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 5년 동안 진행되는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유기농 면 소재, 천연소재 재생섬유, 재생 폴리에스터섬유 등 Green textile 소재에 대한 표준 및 표준화 로드맵 개발을 병행하며,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국제 표준화 활동 전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주축 산업으로서 섬유, 패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표준화 기반 구축을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Exporting Textiles: March to Sustainability, cKintetics, 2010.
Sustainable Textile & Fashion, Kate Fletcher, Earthprint, 2009.
Traveling textiles - A sustainability roadmap of natural fiber garments, TheHub, 2009.

김유겸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박사)
FITI 시험연구원 표준화연구센터장
ISO/TC 219 Floor coverings, Secretary
표준학회 운영위원장
E-mail: youkyum@fiti.re.kr